

보험사기의 진화, 이번엔 렌터카 자작극

김명지 기자 maeng@chosun.com

입력 : 2013.03.07 13:00

렌터카업체와 정비업체 직원이 짜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렌트비 명목으로 5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방배경찰서와 함께 보험사로부터 수리차량에 대한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61회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렌터카업체 대표와 영업소장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보험이 대물 배상을 할 때 사고차량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용 외에 차를 수리하는 기간에 대차료(렌트비) 휴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했다. 보험사들이 피해자들이 렌트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실제 차량을 빌리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쓴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를 빌린 경우에는 렌트기간을 부풀리고 차종을 고급차량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정비업체 사고현장 출동직원으로 근무한 김모씨(34세)는 사고현장에서 만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이 아는 렌터카업체를 통하면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나눠 먹자'고 권유해 차량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고차량 운전자와 절반씩 배분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현장출동 계약을 맺은 정비업체 직원이 출동해 정비업체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현장을 수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렌터카업체와 공모한 직원이 사고차량 운전자를 꼬여 내는 수법이다. 김 씨는 공모한 렌터카업체에 자신의 차 14대를 지입해 렌터카업을 병행하기까지 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렌터카 대표 유모씨(47세)와 영업소장 김모(43세) 등 1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이번 보험 사기사건에 연루돼 보험금을 타낸 사고 운전자 석모씨 등 31명에 대한 공모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황대성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보험사가 허술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서 비롯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고 피해자도 '렌터카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